

## 청주 도시공간 탐색

### Investigating the City of Chongju

황재훈 /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by Hwang Jea-Hoon

#### 공간체계 특성

청주시는 우암산을 배경으로 무심천을 끼고 성장하여 왔다. 따라서 시가지의 형성이 7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공간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전하였고, 도시의 주요 기능의 밀집은 물론 유일한 도심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전형적인 단핵도시의 공간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중심으로써 새로운 산업수요가 유입되고 교육과 이를 뒷받침 할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도시는 형태적 확장을 하게 되었다. 지형상의 특성상 청주시의 확장은 주로 서쪽으로 진행되었고, 일부분의 기능이 대전권과의 연계를 위하여 남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쪽의 사창, 봉명동이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고 90년대이후에는 가경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상권과 도시미관에 필요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외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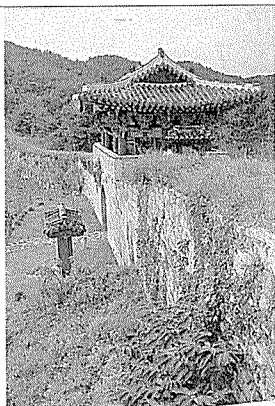
두 지역의 개발적 차이를 과정적으로 보면 전자의 경우는 상당로를 중심으로 도시확장(Urban Sprawl)의 개념이었다면, 가경동의 경우는 택지개발과 주요 도시계획시설 입지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안으로 성장하게 된 지구계획개발(District Plan Development)의 개념이다. 또한 형태적으로 보면 사창, 봉명지역의 경우 도로변을 따라 발전하

는 선적(Linear Form)을 특색으로 한다면, 가경지역은 개발이 지구단위로 이루어져 면적(Areal Form)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계획성이나 공간독립성의 경우 가경지역이 특색이 있고, 토지이용혼합율과 공간조직율(Ratio of Urban Tissue)의 경우는 도시팽창적 성격이 강한 사창, 봉명지역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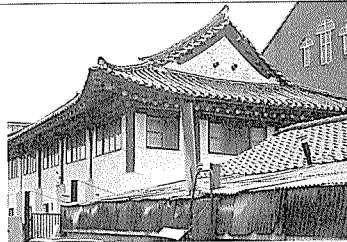
계획성이란 하나의 구체화 현상이나 현실이 결과물로 도출하게 되는 과정의 이성적(혹은 합리적)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경지역은 위치의 선정단계에서부터 단위계획(Unit Plan)에 이르기까지 옹호계획(Advocacy Plan)으로 전문적인 과정에 의존한 반면, 사창, 봉명지역의 경우는 부분적인 개발에 대응하는 비지정계획(Ad-hoc Plan)의 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공간독립성이란 일정한 지역내의 단위공간과 지구공간의 영역성구분의 명확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경지역은 지역지구의 구분은 물론 가구나 필지내의 공간적 영역성이 기능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반면, 도시확장에 의한 경우는 공간과 공간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공간독립성이 낮게 된다. 그 이유는 지역공간조직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공간적, 형태적 변형(Urban Transformation and Modification)이 일어나게 되어 공간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창, 봉명지역이 우세한 토지이용혼합율이란 일정한 대상구역안에 혼재된 토지이용기능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창, 봉명지역의 경우 다양한 업종의 분포로 인하여 토지이용 혼합율의 정도가 높고, 특히 일반상업 기능의 밀집이 두드러진 반면에, 가경지역의 경우는 토지이용의 계획된 분리에 의하여 토지혼합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밀집기능이 우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조직성이란 일정한 공간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조직화된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적 성격이 강한 도시확장의 경우 공간구조의 입지가 작게 형성되어 한 지역내



청주 제일교회 뒤 망선루



청주 상당산성(사적212호)



청주시 가로수 터널

의 건축물이나 공간규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만, 가구단위의 계획이 진행되는 곳에서의 공간구조입자는 계획과 설계의 특성상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는 도시설계적 혹은 도시건축적(Urban Architecture)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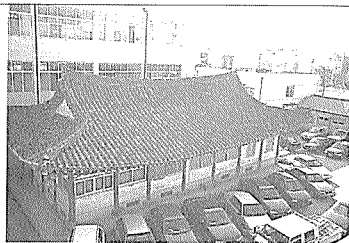
또 하나의 부심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는 상세계획구역에 의해 시행된 옴 1지구를 들 수 있다. 약 38만 명 대지에 4만8천명의 수용인구를 계획하여 382인/ha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면적이 전체의 84.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녹지(8.71%)와 상업지역(6.8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계획상으로는 중밀도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건축법과 청주시 조례에 의해 건설된 결과는 공공용지의 제척비율로 실제적으로는 고밀화된 주거단지로 변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주거위주의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의 산남동과 행정타운의 계획으로 실제적인 부도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도시확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업단지의 위치도 수도권과 교통이동이 편리한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최초 공단위치설정시에는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주시의 발전이 서쪽으로 진행되고 공단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토지이용은 물론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공단과 시가화 지역간에 완충적 역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시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편서풍이 강한 청주의 경우 공단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그리고 냄새가 시가지로 유입되어 대기오염은 물론 도시환경의 질적 하락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첨단업종으로 공단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나 미래지향적인 공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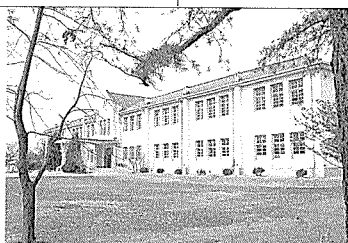
## 용도지역별에 의한 도시공간

청주시의 주거공간은 현대도시의 대표적 병폐인 저층주택과 고층주택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주거환경체계란 도시전체가 일정한 공간구문(Structural Grammar of Space)을 가지고 형성되어 지역과 지역사이에 단절됨이 없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크기는 물론 건축적 맥락성을 통하여 가능한데, 유럽의 경우는 각기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전체성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도시공간구성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도 완충적 성격의 공간을 배치하거나 전이공간(Transitional Space)구성기법을 통하여 전체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지역지구제간의 부조화성은 물론 기성시가지의 주거지역과 새로운 주거지역(아파트단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거기능상 두가지의 유형이 형태적 상이성이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지역간 두 유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청주시의 내부(Inner Ring)는 전형적인 저층 주거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환형(Outer Ring)으로 에워싸고 있다. 전형적 주거는 우암산기슭을 따라 대성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무심천 주변으로 확장되어 왔다. 수동근처의 산구릉지에는 중저소득층 위주의 주거가 형성되어 한동안 청주시의 대표적 주거경관으로써 역할을 하였고, 평지에는 양호한 주거유형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역의 특성은 지역적 동질성(Homogeneity)과 형태적 통일성(Unification)으로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도시기반시설의 낙후로 점근성이나 이용효율성이 저하되어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들은 문제경관을 양산하고 있고 평지의 주거지들은 개선적 변화없이 공간의 질적 하락을 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고층아파트단지의 형태는 청주에서도



청주 동현



청주 충북대 법학관



청주대 법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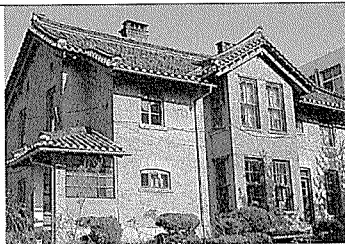
주거전형(Prototype)을 바꾸게 되었다. 특히 이들 아파트단지의 경우 시의 남쪽부분에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용암 1지구, 분평지구, 산남지구, 가경지구이외에 새로운 주거단지(개신지구, 용암2지구)의 건설예정지로 고층아파트 블록화가 심화될 예정이다. 이 블록화된 아파트의 경우 청주시나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설계에 의해 건설되기보다는 지역단위별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인해 단지간의 조화가 결여되고 특히 획일적으로 남향배치형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단조로운 주거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시 시각회랑을 고려하지 않아 모든 면이 다른 아파트로 둘러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맨 앞과 뒤 건물만이 다른 경관을 접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 형태 또한 같은 크기의 판상형으로 배치되어 변화가 없고 지루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거대한 콘크리트덩어리의 모습으로 시각소통효과(See-through Effect)없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함께 경관적 단절을 가지고 온다. 외국의 주거단지배치시 건물 사이사이로 뒷배경이 보이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상하를 전혀 다른 요소로 나누어지게 계획하지 않아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뒤의 다른 기능의 축조물을 보이도록 하여 다음 공간으로의 연결을 돕고 있다(Picturesque 기법). 청주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주거지역인 용암 1지구의 경우,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교통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공간적 측면 혹은 설계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살기는 편한데 왠지 삭막한 느낌이 드는 곳', '정돈되고 깨끗하지만 왠지 정이 붙지 않는 곳' 등 계획적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성, 편리성, 재산성을 이유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간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인간적이고, 획일적이며 또한 동네의 공동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유로는 지구내 단지별로 저밀도 개념보다는 고밀도의 단지로 구성되어 인간척도가 무시되어 있고 경관적인 측면에서 주거환

경의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밟고 살지 않는 건물형태와 반복적이고 주위와 단절된 주거단위의 형태, 그리고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웃들속에서 예전의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잃어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청주의 상업지역은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북문로변의 지역, 상당로변을 따른 선형의 상업지역, 그리고 가경동의 중심상업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흔히 시내라고 불리는 음성부근과 북문로변이 면적으로나 업종분포로나 청주시의 대표적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당로주변의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확장과 더불어 간선도로변에 형성된 상권으로써 음성지보다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현대적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지역의 건축물은 청주시의 집안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미관적 우수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건축적 면은 높지 못하다. 건축으로써의 기능성과 예술성은 있으나 서로간의 형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개발의 주체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상업주의적 형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의 맥락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 상업지역인 음성부근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내의 다른 용도와와의 혼합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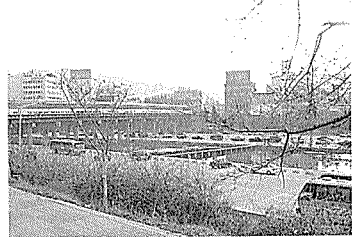
이지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상권이며 청주의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관공서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백화점 등이 위치하여 인구흡인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도청, 시청, 청원군청,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들이 1km반경이내에 밀집되어 일반상업시설과 혼재되어 있다. 이는 기관간의 기능적 효율성은 양호하나 시의 상징적 공간의 부재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도시와는 달리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공간위계질서를 가질 때 비로소 지역적 장소성과 지역성이 명확해진다. 외국의 경우 청주시 규모의 도시의 경우 관청(주로 시청)이나 종교적 공간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방문자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



청주 양관2호



청주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1993. 1. 7)



무심천 풍물시장

고 지역사회의 형태적, 정신적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주시가 가지는 중심부지역의 상업과 행정의 혼용상태를 정리하여 각각의 영역을 분리하고 다른 공간개념도입이 필요하다.

또 다른 특성은 보행에 의한 연결성이다. 상업지역내 대부분의 중요시설간에 도로로 이동이 가능하고 보행안전성이 확보되어 상업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공공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당로변의 지하상가와 성안길의 연결을 통하여 가로몰(Street Mall)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길이가 보통 성인들이 지루함이 없이 걸을 수 있는 800m~1,000m사이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외국 몰의 길이와 유사). 더구나 성안길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청주에서 가장 테마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개의 백화점과 각종 소규모상업시설들이 15m도로변을 따라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면도로까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성안길 남쪽은 가구거리가 가로지르며 특화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한 블럭 북쪽으로는 생활용품(혼수품)가 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권은 중앙공원, 철당간, 관아 등 역사적 공간과 연결이 되어 공간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마지막 특성은 도시공간의 조직성이다. 지역내의 가구(街區)의 경우 격자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크기는 평균 1,000㎡정도이다. 가구내 건축물의 높이는 상당로변을 제외하고 평균 3층이하로 소규모의 시설들이 입지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필지의 크기가 아직 변화(합필이나 분필 등)가 없어 건축물의 크기 또한 보행을 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규모와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환경심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사물인지의 적정 각이 15도임을 감안하고 채광과 통풍을 고려할 때 성안길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는 쾌적한 보행성을 위해 적당한 규모이다. 그러나 성안길이 지구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와 같은 시각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적 장치가 없이 차량차단에 의한 보행성만 확보되어 지역적 상징성과 함께 바람직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무질서하고 난립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건물간의 맥락성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지역적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맥락성의 경우 여러 단계의 요소중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지역의 경우 건물간의 스케일만 제외하고 색깔, 높이, 재질, 비례, Datum 등 유사성을 찾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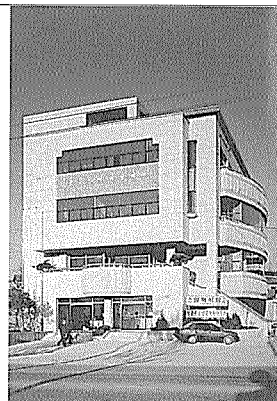
청주시 공원녹지공간의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는 풍부한 공간성과 건강성이다. 동쪽의 우암산공원, 서쪽의 부모산공원, 그리고 남쪽의 구룡산을 중심으로 하는 청주대공원 등 자연성이 우수한 공원의 면적이 전체 공원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공간의 위치로 인해 Buffer기능 뿐만 아니라 양호한 수림을 가지고 있어 청주시의 폐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암산의 경우 명암유원지를 시작으로 박물관, 어린이회관, 동물원, 약수터를 거쳐 상당산성까지 다양한 문화시설과 외부공간이 선적(Route)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여가공간이며, 또한 청주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우암산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관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도심침투형 녹지체계이다. 도시내 위치한 공원이 분산된 형태로 자연스러운 공원경계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공원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암산공원의 경우 산의 능선을 따라 공원이 지정되어 상리나 중리처럼 공원에 의해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공공원의 경우 자연공원처럼 자연형태를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시내 중심부에 큰 면적의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상당한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공원의 경우 가장 중심적 위치에서 문화적 가치와 함께 일반시민은 물론 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셋째는 녹지축의 형성과 다른 기능과의 연계성이다. 우암산과 부모산을 동서축으로 하여 가로변 녹지공간(가로수터널)을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고, 남북축의 경우는 북쪽의 운천, 신봉공원을 시작으로 체육관을 거쳐 모충공원과



청주 시청동 노합('93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



청주SHIPS('94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



청주 한씨중중 근린생활시설 ('94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작)

수곡공원을 거쳐 청주대공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 남북공원축이 동서축을 양분하면서 형성되어 청주시를 지역적 권역으로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공단의 경우 운천, 신봉공원이 다른 지역과 완충적 역할을 하고 모충, 수곡공원의 경우도 기성시가지와 계획시가지 사이의 경계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북축은 무심천변과 도보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수변공간과의 연계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무심천의 경우도 현재는 체육공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점차 천변녹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녹지공간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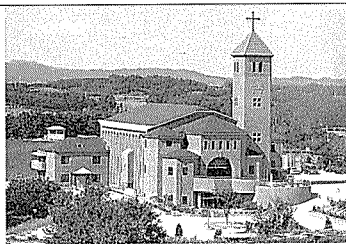
공원녹지공간의 경우 청주의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실정이다. 첫째는 많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설율이 높다는 점이다. 자연공원 3개 전부가 미시설이며, 근린공원의 경우 34개소중 20개소가 미시설로 남아 있어 경계만 지정되어 있을 뿐 시민들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시설화된 공원과 관리의 비효율화로 공원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원시설물들이 낙후되고 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공원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설문조사(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주관, 1997)에 의하면 청주시민들의 48%가 공원수자나 면적에 대하여 아주 부족하다고 대답하고 39.4%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대답하였다. 청주시가 가지는 좋은 녹지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화와 관리의 미숙으로 일반시민들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생태적 개념의 부족과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원의 부족이다. 공원녹지의 축의 개념이 아직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생태적 단절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도시생태를 위한 에콜로지 맵, 생태순환모델, 수용능력분석 등을 통한 공원이정정보는 식재위주의 공원이정되어 생태적 건강성이 불균형적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공원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고, 공원내의 공간과 시설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각 공원만이 가지는 특성이 매우 약하

다. 이는 외국의 공원이 주는 이벤트를 통한 지역의 대표성과 공간의 장소성을 가지지 못함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공업지역의 경우 공단이 도심부의 서쪽에 근접하고 있어 환경적, 공간적, 기능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업지역의 구조상 첨단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있어 공해나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청주시의 발전축상에 위치하여 공간구조개편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오창과화산업단지와의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중복투자나 경쟁력 상실 등 기능상의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공단이 신봉, 운천공원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주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공업지역의 공간성은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시민과는 거리가 먼 생산현장으로써의 공간만을 가지고 있어, 설계의 기본원칙인 공공성(Public Communication)이나 사회성(Social Mix)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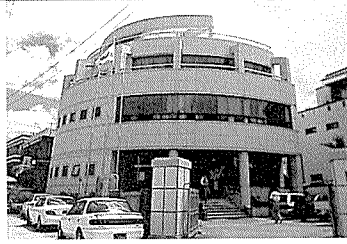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는 공단의 개념과 주거의 개념, 그리고 문화의 개념을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낮활동 위주의 공간에서 전일활동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장소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공업단지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기존의 틀을 고부가가치화, 기술집약, 저공해 및 새로운 수요패턴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는 청주시가 가지는 공업용수의 한계성과, 위치성, 특성화된 공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소규모의 기술집약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재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뿐 아니라 산업성과 주거성을 함께 형성하여 장소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주변의 공간이용패턴과의 연계방법으로 오창과화산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되 청주, 증평, 오송신도시를 지원도시로 각기 고유의 기능



청주 사천동 천주교회  
(95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작)



청주 명성제(95 아름다운 건축물佳作)



청주 영운동 동사무소  
(96 아름다운 건축물佳作)



을 분담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 지역성을 위한 용도지역별 제언

**주거지역:** 첫째, 지역지구상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주거용지의 혼용 정도가 심해 특색 있는 주거형태는 물론 지역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거 지역을 건축법규에 명시된 대로 구분하고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여 특성화된 지역주택건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고층화된 남부아파트벨트내에 새롭게 계획되는 단지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배치기법을 고려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주도록 하고, 자체내의 스카이라인을 조정하여 경관성은 물론 장소성을 강조한다. 셋째, 지역건축성을 살린 주거유형을 개발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주거지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견본 주택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업지역:** 첫째, 소규모의 상업에 의한 공간구성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의 영역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고밀화를 통한 도시건축화를 추진한다. 외국의 몰(Mall)의 시장적 개념과 전통의 공간적 장터개념을 혼용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상업지역이 가능하다. 둘째, 총체적 공간구성패턴내에서 상업지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통하여 지역내 정리된 시각화를 창출한다. 특히 구읍성내부지역의 경우 상업적 공간이면서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과정과 기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공간특성화를 유도한다. 뉴욕의 그리니치빌리지(Greenwich Village) 경우 역사적인 공간과 상업성이 공존하는 좋은 사례지역이다. 셋째, 읍성지역의 면적인 상업공간과는 별도로 가로수도로부터 중앙공원까지 이르는 도로를 대표적 가로경관계획지구로 지정하여 맥락성을 고려한 고층상업건물들을 위치시켜 차량위주의 공간으로 전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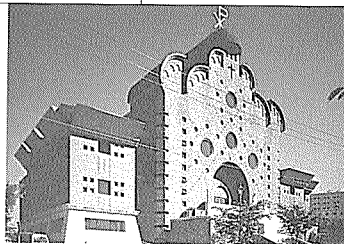
고, 배후블럭을 저층 건물로 유도하여 선적인 보행자위주의 물 개념으로 전환시켜 공간을 특성화한다.

**공원녹지지역:** 도시의 지역성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계획이다. 프랑스의 식재계획을 통한 다양한 공원이나 이태리의 조각품이나 가로시설물계획을 통한 피아자(Piazza)들로 도시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청주의 녹지공간체계와 연결시켜 보면 첫째, 우수한 주변 자연공간과 인공성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심지내 침투형 녹지체계를 가진다. 둘째, 용도지구별이나 생활권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도심을 4등분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공원을 각 지역의 중심에 위치시켜 생활권의 중심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셋째, 산재한 녹지공간들을 형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연계를 시키며 다른 기능의 공간과 유기적 관계를 수립한다. 특히 무심천변의 녹화사업을 통하여 생태성회복을 통한 공원화를 유도하여 지역적 특성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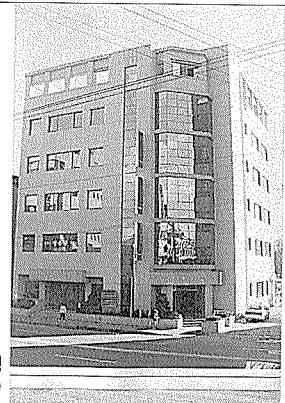
**공업지역:** 첫째, 첨단업종과 기술집약적 공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공업지역내에 여러 가지 다른 공공기능들을 첨가시켜 시민의 이용을 유도한다. 특히 공업단지의 일부분을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도입하여 변화된 공단의 공간을 모색한다. 폐수를 이용한 양어장이나 친수공간을 마련하거나, 완충적 공간에 목축을 하므로 공간효율성의 제고는 물론 공공의 접근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둘째는 이전부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프랑스의 라빌렛공원의 경우 단순한 공원의 성격외에 산업정보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므로 복합화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대농부지에 관한 계획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통하여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청주 금천동 근린생활시설  
('96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작)



청주 성루가성당  
('97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작)



청주 수곡동 화성빌딩  
('97 아름다운 건축물 가작)